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 구 나주驛舍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ervation and Reuse of Historical Heritage - Case Study of Naju's Old Railway Station Building -

김흥기*
Kim, Hongi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ansition process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Naju's old railway station building from 1913 to 2002. It considers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and reuse. It analyzes investigation record of the condition of Naju's station from 1948 to 1993 and standard building design at Japanese colonial period. It analyzes as well, transition of building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in 1993 and those of the present conditions. In addition, it analyzes interviews with the city officials and residents in city.

Keywords : Railway station building, Modern architecture, Conservation, Reuse, Naju city

주요어 : 철도역사, 근대건축, 보존, 활용, 나주시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건축공간이나 도시공간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과거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 활용하는 시도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 유산에 대한 보존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역사적 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보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건물이나 유적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문화재」로 불리었으며, 역사적으로 혹은 문화 예술적 관점에서 특히 가치가 높은 것만이 보존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보존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는 문화재로 지정이 될 만한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유적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역사를 이

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나 주거군, 역사적 사건 및 장소 등 다양한 종류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지역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보여 진다. 특히,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주거군을 포함하는 면적보존 활용에 있어서는 문화재보존과 같이 동결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생활 속에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단일건물의 보존만이 아니라 그 주변과 일체화된 보존 활용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역사적 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존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존대상 건물과 그 주변상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건물의 역사와 현상을 기록하고 가치를 평가하여 보존 활용의 방향성과 방법을 검토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본 연구 대상지인 나주시에서는 호남선 복선공사에 따른 신驛舍 건립에 의해 철거 위기에 놓인 구驛舍와 그 주변의 주거지 일대를 보존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나주시는 구 나주驛舍를

*동명정보대 건축대학 건축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 보존하고, 현재 구 나주驛
 숲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일대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 나주驛숲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근
 대건축물로서 문화재적 가치는 높지 않지만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고
 나주시민들이 공통된 기억을 가진 친숙한 장소로서
 의의도 크다. 역전의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형
 성되어 있는 주거군은 노후화되어 있지만 구 나주驛
 숲과 일체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경관적 가치도 크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 나주驛숲은 그 일대 주거
 군을 포함한 면적 보존의 핵이 될 수 있으며 역사적
 유산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구 나주驛숲은 여러 차례 증·개축
 되어 건립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없으며 보존 활용을
 위해서는 역사적 사건의 무대로서 사건 발발 당시
 驛숲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구 나주驛숲과 그 주변의 주
 거지 일대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연구의 첫 단계로서
 면적보전의 핵이 될 수 있는 구 나주驛숲을 대상으
 로 하여 구 나주驛숲의 역사적 변천과 그 특징을 파
 악하고 보존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구 나주驛숲과 같은 공공건물
 의 보존활용을 통하여 그 주변 일대 주거군의 보존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적 자료가 된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구 나주驛숲의 역사적 변천에 관해서는 구내시설
 배치와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와 문헌을 토
 대로 평면구성과 입면구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1913년 나주역 건립 당시의 건물의 모습이나 기
 록이 남아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일제강점기 한국철도
 驛숲 설계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던 표준설계의 변천을
 파악하여 건립당시의 모습을 추정하였다. 자료가 남아
 있는 1948년부터 1971년까지는 羅州驛驛勢圖書,¹⁾ 羅
 州驛驛勢一般,²⁾ 육운설비일제조사서,³⁾ 1972년부터

1993년까지는 運輸運轉設備카드⁴⁾ 등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또한 1993년 철도청설계사무소에서 실측
 한 도면과 2002년 7월 필자가 실측한 도면을 비교하
 였다. 보충적으로 일본의 철도문화재 담당자와 나주시
 문화재 관리 담당자, 1929년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
 었던 당사자⁵⁾ 및 시민들에 대한 인터뷰조사를 하였다.

3. 기존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로서는 근대건축물보
 전에 관한 연구와 철도驛숲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연
 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로서
 는 문화재로 지정된 전국의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존·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연구가 있다.⁶⁾ 여
 기에서는 조사대상건물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지 보존되고 있으며 용도변경을 통해 활용되고 있
 음을 밝혔다. 또한 기록보존에 있어서의 전문성의 결
 여, 기록의 비효율적 체계 등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
 선책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항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 지어
 진 건물들을 대상으로 보존가치를 분석한 연구가 있
 다.⁷⁾ 여기에서는 한국근대건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
 악하고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한국근대건축 보
 존·재활용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철도驛숲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는 한
 국철도驛숲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⁸⁾ 여기
 에서는 19세기 말에서 1945년 광복에 이르는 철도
 驛숲을 대상으로 시대별,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2) 1948년도 자료만 남아 있으며 순천철도사무소가 작성한
 자료로서 구내 시설의 크기와 면적이 기록되어 있다.

3) 1959년도 자료만 남아 있으며, 역사건물과 부속건물의 평
 면도와 면적이 기록되어 있다.

4) 73-75년, 80년, 85년, 89년, 91년, 93년 자료가 남아 있
 으며, 이 자료에는 건물배치도, 구내시설 면적, 평면도 등이 기
 록되어 있다.

5) 이광춘씨.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단이 되었던 나주역에서
 의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들의 충돌사건의 현상이 있었
 던 당사자이다.

6) 김동식, 김태영(2002), 근대건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현
 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 15호

7) 이혜경, 윤인석(2000), 한국근대건축의 보존과 활용에 관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0권 제2호

8) 김종현(1998), 韓國鐵道驛舍(1899년~1945년)의 建築的
 特性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1호(통권111호)

1) 1948-49년, 53-56년, 58년, 64년, 66-71년까지의 자료가
 남아 있으며 64년까지는 자료명이 [나주역역세조사]로 되어
 있고, 그 이후는 [나주역역세보고서]라고 되어 있다. 이 자료
 에는 역명의 기원, 역 부근의 역사 및 주요건물, 구내시설과
 면적, 위치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상기의 논문들은 현재의 한국근대건축물 보존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의 보존, 활용방안을 고찰한 연구와 한국철도驛舍의 변천과정을 시대별, 유형별로 파악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 유산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구 나주驛舍를 대상으로 驛舍건물의 역사적 변천과 그 특징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존 활용방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기의 연구와 다르다.

II. 구 나주驛舍의 현황 분석

1. 구 나주역의 개요

구 나주역은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驛舍는 1913년 7월 1일 호남선 개통에 따라 건축되었다.<그림 1, 표 1>

나주역이 소장하고 있는 「驛史」에 의하면, 구 나주역은 1913년 7월 학교·나주간의 종착역으로서 영업을 개시하였고 같은 해 10월 나주·송정리간의 중간역으로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주역의 「역명칭 제정유래조사서」에 의하면 1925년에 驛舍를 신축하였으며 1963년에 구내를 확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

표 1. 나주역의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동 60-1번지
도시계획	문화자원보존지구
규모	목조 단층
초창년도	1913년
구내시설	驛舍, 수화물창고, 유류고, 화물상옥, 화장실
문화재지정	전라남도 기념물 제183호(2000년)

다. 호남선복선화공사에 의해 철도기능은 신 驛舍로 이전하여 구 驛舍는 해체의 위기에 처했으나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관의 노력으로 2000년 12월 전라남도 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나주驛舍와 가로변 건축물의 현황

대지 내에는 연구대상 건물인 驛舍와 수화물창고, 유류고, 화장실, 화물상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驛舍는 목조단층 건물로서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 형태이며 역 광장을 사이에 두고 전면도로에서 정면이 보이도록 위치하고 있다.

도로의 양측에는 일체강점기에 형성된 주거군이 남아 있으며 驛舍와 일체화되어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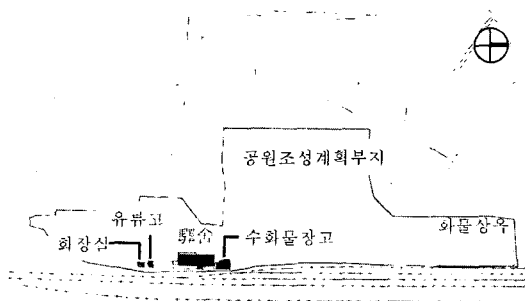


그림 1. 구 나주驛舍의 현황 배치도



사진 1. 구 나주驛舍와 역전 가로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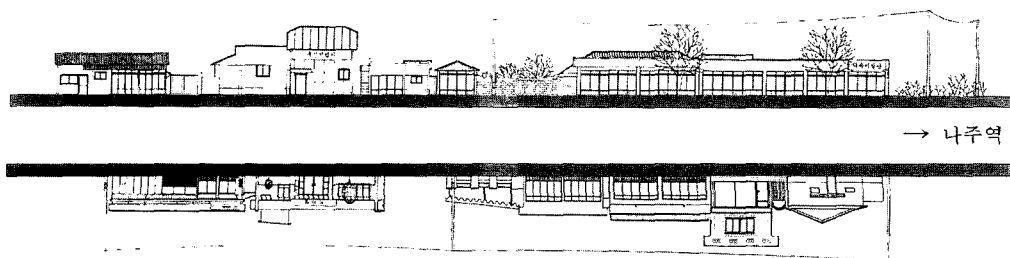


그림 2. 역전 가로 연속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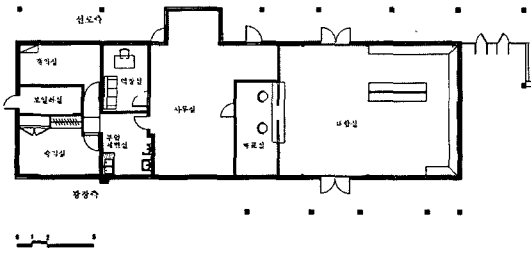


그림 3. 현황 평면도

<사진 1, 그림 2> 가로변에 즐비해 있는 건물들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주택과 창고 등이 현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신축되었으나 당시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노후화되어 있다.

건물의 평면구성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객공간인 대합실과 역무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무공간에는 사무실, 역장실, 숙직실, 매표실, 세면실, 갱의실, 보일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찰구는 대합실내에 있으며 역무공간으로의 출입은 건물 정면부분에는 없으며 건물 배면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건물의 입면구성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붕은 골스레이트 박공지붕과 정면에 삼각형 박공면을 강조하고 있다. 도로의 정면에서 삼각형의 박공면이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붕의 삼각형 박공면을 강조한 유형은 일제강점기 철도驛舎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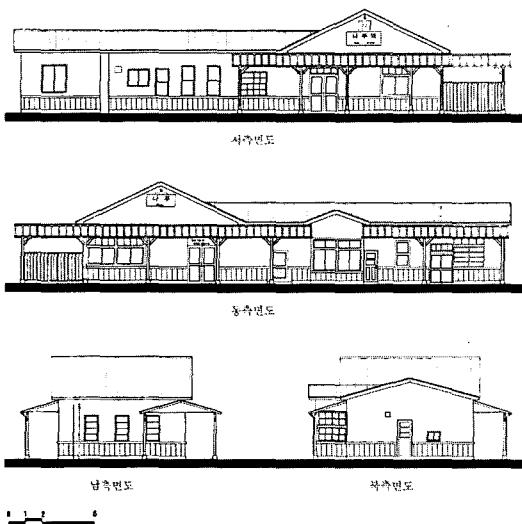


그림 4. 현황 입면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벽면은 회반죽마감, 벽면하부에 널빤지 붙임으로 되어 있다. 출입문은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으며 창문은 오르내리창과 미닫이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 구 니주驛舎의 변천과 특징

1. 일제강점기 驛舎건축시설의 개요

일제강점기의 驛舎건축시설 설계의 진행방법에 있어서 驛舎별로 설계를 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중간驛舎나 관사 등 일반적인 것으로 그다지 변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驛舎별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설계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했다.⁹⁾

驛舎는 임시군용철도감부에 의해 마련된 甲乙丙丁의 4종류의 표준설계를 토대로 그 지역에 적합한 驛舎를 건축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¹⁰⁾ <표 2> 甲乙형의 驛舎는 극히 드물며, 그 후 개축 등에 의해서 거의 원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건물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목조 단층건물이며 재료는 한국산을 채용했다. 지붕은 아연파형철판을 사용하고 내외벽은 흰색회반죽마감, 허리부분 널빤지 붙임, 창틀은 2중 내외, 양쪽열기를 채용했다.

건축표준에 대해서는 경부선, 군용철도의 驛舎, 관사에 이미 실시되었고 그 후 경원선, 호남철도건설시에 이것을 정비하여 크기, 구조에 의해서 분류하였다. 驛舎는 甲乙丙의 3형으로 통일하였으나 시대의 경과에 따라 시대의 영향, 토지의 상황, 사용재료의 변천 등에 의해 모양이 다양하게 되었다.

호남선은 1910년 전후에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각종 건축시설은 당시의 표준설계에 의한 것으로서 호남선의 목포역, 군산역은 甲형, 그 외의 중간역은 乙 또는 丙형의 驛舎로 역세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개축을 하였다. 「한국철도 100년사」에 의하면 이러한 표준설계는 증축 혹은 지역의 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를 유도하게 되어 철도驛舎는 일제강점기 동안 시대적 요구나 驛舎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줄곧 개축, 증축, 신축이 이루어졌다. 호남선의 대

9) 鮮交會(1960) 「朝鮮交通史」, p385

10) 朝鮮總督府鐵道局(1937), 朝鮮鐵道史 第一卷, p485

표 2. 일제강점기의 驛舍건축시설의 설계기준

연 대	유형(표준평수)	특 징
1900년 전후	甲(50-60평) 乙(48평) 丙(38평) 丁(3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군용철도감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甲乙형의 역사는 극히 소수이다. ·유형별 표준평수는 부속건물에 따라 면적이 달라진다. ·규모: 목조단층건물 ·재료: 한국산 사용 ·지붕: 아연과형철판 ·내외벽: 흰색 회반죽 마감, 허리부분 널빤지 붙임 ·창틀: 2중 내외, 쌍여닫이문
1910년 전후	甲 乙 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원선, 호남선 건설 시에 표준설계를 재정비. ·크기, 구조에 의해 분류 ·호남선의 목포역, 근산역은 甲형, 그 외의 중간역은 乙 또는 丙형
1920년대 후반	暖 寒	-
1937년	暖 寒 嚴寒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조, 심벽이 많음 ·혹한 지방의 우물 및 상옥은 벽돌조, 콘크리트조, 블럭조 ·2중창, 쌍여닫이문
1938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등 대합실과 3등 대합실과의 구별을 폐지 ·집찰 상옥을 폐지

1900년 전후: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鐵道史 第一卷」참고. 그 외: 鮮交會 「朝鮮交通史」참고.

부분의 驛舍는 표준설계에 의한 일본의 전통적인 양식으로 평면형태는 대개 직사각형으로 일본 전통적인 평면구조와 유사하다.

또한 1937년에는 暖·寒·嚴寒의 3지대별로 각각 표준을 새롭게 하였으며 1·2등 대합실과 3등 대합실과의 구분도 없었다. 구조와 설비는 종래의 것은 목조, 심벽이 많고 기초도 간단하였으나 그 후 점차적으로 벽돌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로 변했다. 1926년 이후 총독부에서는 주요도시에 대한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에 따라 철도건축시설도 그것에 준한 설계를 했지만 1927년 중일전쟁 발생이후는 각종 자재를 제한하였으며 방공 상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설비를 하였다.

2. 구 나주驛舍의 변천과 특징

1) 평면구성

이 건물의 평면구성의 변용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913년 건립당시부터 1925년 신축되기 전까지의 단계, 1925년 이후부터 1963년 구내확장되기 전까지의 단계와 1963년 이후 단계로 대별된다.<표 3>

1913년부터 1925년 신축되기 이전까지의 평면구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도면 등의 자료는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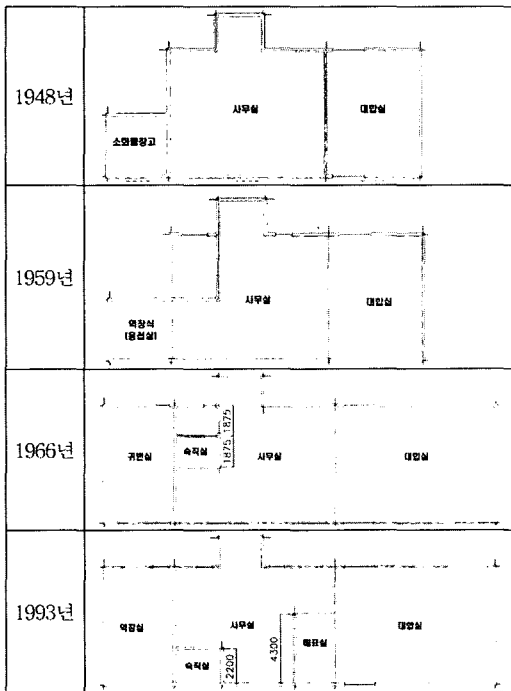
으나 1910년 전후에는 甲乙丙의 3종류의 표준설계를 마련하여 호남선의 중간역에는 乙 또는 丙형으로 驛舍를 건축한 것으로 보아 이것으로 건립당시의 나주驛舍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나주시「驛史」의 年度末構內面積及建物別坪數(1913년~1943년)에 따르면 1913년 驛舍의 면적은 58(1/2)평, 부속건물의 면적은 37(1/2)평으로 구내시설의 면적 합계가 96.25평이다. 당시의 설계기준에 따르면 나주역은 중간역으로 표준설계의 乙 또는 丙형에 해당되어 부속건물을 제외하고 38-48평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나주역사는 58.5평으로 乙 또는 丙형의 표준평수보다 면적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23년 驛舍복측에 소화물 보관고 4평이 증축된 이후로 1943년까지 구내면적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驛舍의 규모에는 변화가 없으며 공간구성은 대합실과 사무실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驛舍는 1925년에 신축되었으나 그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1963년 구내 확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증개축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없으나 1948년과 1959년의 도면을 보면 이 시기의 평면구성은 대합실과 사무실, 역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 내에는 부엌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5> 1925년 신축 시에도 표준설계가 적용이 되었

표 3. 구 나주驛舍의 평면구성과 입면구성의 변용

구분	1913년~1925년	1925년~1963년	1963년~1993년	1993년	2002년 현재	
규모	단층	단층	단층	단층	단층	
건물양식	일본목조양식	일본목조양식	일본목조양식	일본목조양식	일본목조양식	
평면형태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평면구성	접객영역	대합실	대합실	대합실확장 매표소	대합실 매표소	
	사무영역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확장	사무실	
			부엌	숙직실	숙직실	역장실
				부엌		부엌, 세면실
역장실 (웅접실)	귀빈실 (역장실)	역장실	갱의실 보일러실 숙직실			
입면구성	지붕형태	우진각지붕	박공지붕 정면 삼각형박공	박공지붕 정면 삼각형박공	박공지붕 정면 삼각형박공	
	지붕재료	일본기와	아연과형철판 일부 기와 가라지붕	골철판지붕	골슬레이트	
	벽면	회반죽마감 널빤지붙임	회반죽마감 널빤지붙임	회반죽마감 널빤지붙임	회반죽마감 널빤지붙임	
	창	쌍여닫이문	오르내리창 미닫이창	오르내리창 미닫이창	오르내리창 미닫이창	



1948년, 1959년, 1966년은 각주 1), 2), 3)의 자료, 1993년은 철도청순천건축사무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그림 5. 연도별 평면구성

을 것으로 보아 驛舍의 면적은 건립당시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역의 「역명칭제정유래조사서」와 철도청 순천 건축사무소가 소장하고 있는 건축대장에 의하면 1963년에 구내시설이 확장되었으나 도면은 남아 있지 않다. 1966년도의 도면으로 그 당시의 모습을 추정하면 사무실 내에 숙직실과 부엌이 설치되었으며 역장실을 확장하여 귀빈실과 겸용하였다.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지방의 특권계층들은 대합실을 이용하여 개찰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빈실에서 개찰구를 거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건물 정면에서 귀빈실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1993년 철도청설계사무소에서 실측한 도면에 의하면 1966년과 비교하여 평면구성이 거의 동일하지만 사무실과 대합실 사이에接客공간인 매표소가 설치되어 대합실 내부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여 열차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권계층들이 귀빈실로 직접 출입하도록 건물 정면에 설치되었던 문은 폐쇄되었다. 역무원들이 사무실로 진입하는 문은 건물 배면에 설치되었고 대합실 내에 매점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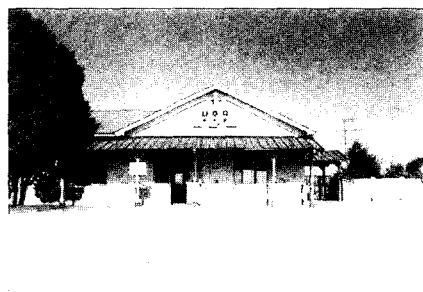
1920년대 모습



1973년 모습



1993년 모습



2002년 현재 모습

1920년대: 「사진으로 보는 근대한국」 서문당, 1996년에서 인용
1973년, 1993년: 나주역 「운수운전설비카드」에서 인용 / 2002년: 필자 촬영

사진 2. 연도별 구 나주驛舍의 모습

2002년 실측한 결과 1993년도 보다 실구분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응접실, 귀빈실로 이용되었던 역장실의 기능이 축소되어 규모도 작아졌으며 숙직실, 세면실, 보일러실 등의 역무원들을 위한 공간이 확장되는 등의 변용이 보인다.<그림 3>

2) 입면구성

이 건물의 입면구성은 1925년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다. 1913년부터 1925까지는 표준설계로 당시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목조단층건물로서 일본전통양식의 건물형태로 추정된다. 이러한 특징은 1920년대 사진에서 보여 지는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1920년대 사진에서 보여 지는 모습이 건립 당시의 모습으로 추정된다.<사진 2> 거의 동일한 시기에 건립된 호남선의 목포역, 군산역에서 볼 수 있듯이 지붕은 우진각지붕 형식으로 용마루나 처마 등이 직선적이고 처마 밑에 차양이 설치되어 있다. 지붕의 재료는 일본기와이며 외벽 하부에는 널빤지 붙임으로 되어 있다.

1925년 신축되었을 때의 입면구성을 알 수 있는 도면은 없으나 동일한 시기에 건립된 역사들이 지붕

의 삼각형의 박공면을 강조한 건물이 특징적인 것으로 보아 이 건물도 삼각형의 박공면이 있는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3> 호남선의 목포역이나 군산역에서도 정면 입구에서 삼각형의 박공면을 돌출시킨 포치를 두어 입구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나주역의 경우는 군산역, 목포역보다 규모가 작은 중간역이었으므로 박공면의 포치가 생략되고 현재의驛舍의 모습과 유사한 지붕에 박공면을 나타내는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29년 사건 당시에 현장이 있었던 당사자 및 시민들의 증언으로 현재의 역사의 모습은 사건당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주역이 보관하고 있는 「建物引繼調書(1935년)」에 의하면 지붕의 재료가 아연파형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25년 신축 시에 일본기와에서 아연파형철판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1963년 구내가 확장된 이후의 모습은 박공지붕에 골철판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의 한쪽 측면에 박공면을 두어 대합실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면과 배면에 차양을 돌리고 있으며 벽면은 회반죽마감, 하부에는 널빤지붙임으로 되어 있다. 철도청 순천 건



키타가누마(北鹿沼)역 1929년



에미(江見)역 1922년



목포역 1913년



군산역 1912년

출전: 키타가누마역, 에미역 - 杉崎行?恭(2000), 驛舎再發見
목포역, 군산역 - 朝鮮總督府鐵道局(1937), 朝鮮鐵道史 第一卷

사진 3. 표준설계에 의한 驛舎

축사무소에 따르면 그 당시에 역사의 구내확장 등 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붕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1925년 신축 당시의 지붕의 형태가 현재 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25년의 모습과 비교하여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박공지붕과 삼각형의 박공면이 강조된 점 등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1963년 구내확장 이후 입면구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단, 1993년의 사진에서는 광장 쪽에서의 주출입문과 개찰구의 주출입문이 쌍미달이문으로 되어 있으나 2002년 실측 결과 두 개의 출입문은 쌍여달이문으로 되어 있다.

IV. 보존활용 방안

1. 보존활용의 방향성

구 나주역은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의 3대 민족해방운동의 하나로 손꼽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며, 驛舎 그 자체는 항일민족운동의 심볼로서 문화적 가치도

있다. 또한 驛舎는 일제강점기의 일본전통양식의 목조건물로서 희소가치가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나주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지역의 역사적 유산이다.

그러므로 구 나주驛舎는 기본적으로 현지보존, 현물보존이 바람직하다. 이 건물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무대로서 건립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보다 사건 발발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건물의 보존활용에 있어서는 驛舎내부에 진열대를 두어 전시품을 진열하는 형식이 아니라 驛舎는 역사적 사건의 무대이므로 건물 그 자체를 전시물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또한 나주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친숙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驛舎주변의 주거군과 연계하여 보전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보존활용 방안

구 나주驛舎의 보존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로서 역

사적 의의가 크므로 사건 발발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것이 나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1929년 사건 발발 당시 驛舍의 모습은 1925년 신축 시의 모습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6, 그림 7> 현재의 驛舍와 비교하여 규모는 작지만 박공지붕에 정면에 삼각형 박공면을 강조한 형태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29년 사건 당시에 역사적 장소에 있었던 당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의 외관 형태와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규모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외관의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내부의 변형된 부분을 최소한의 구성으로 복원하고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재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경우 건립 당시의 경관과 사건 발발 당시의 규모는 재현할 수 없지만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로서의 역사성과 장

소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복원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驛舍활용에 있어서는 역사적 사건의 진원지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여 구 나주驛舍와 그 주변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을 도시 박물관으로 구상하여 驛舍 건물 그 자체를 전시물로서 존재하도록 하며 기존의 문화재 보존과 같은 동결보존이 아니라 문화재를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물 내부의 대합실, 사무실, 역장실 등은 전시시설로 활용하여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 전시물을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 야간 또는 휴관일에는 대합실, 사무실 등을 집회실, 회의실 등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장실, 숙직실 등은 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역전에 형성되어 있는 주거군 중에서 가로변의 건물들은 구 나주驛舍와 일체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존하고 있는 일체강점기의 건물은 그 특징을 보전하도록 수리를 하고 가로 경관의 특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방향으로 개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 개축 시에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리 또는 개축을 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도 수리 또는 개축을 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장 및 특산품판매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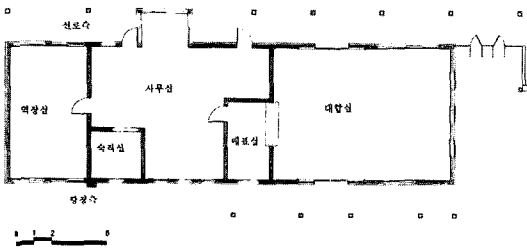


그림 6. 평면 복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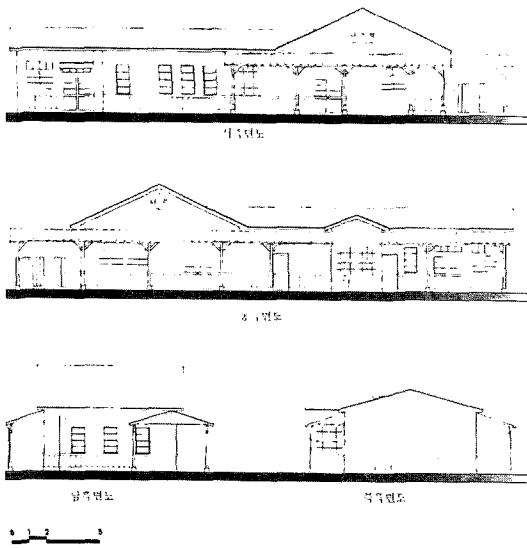


그림 7. 입면 복원안

표 4. 驛舍의 활용방안

활용 방안	
전시 시설	
집회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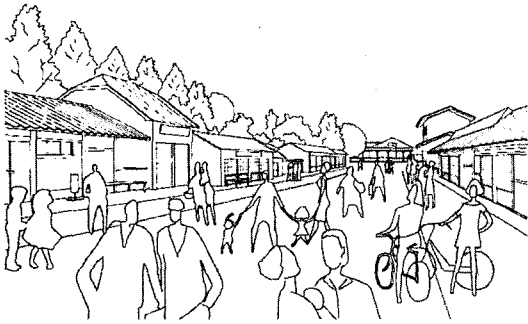


그림 8. 역전 가로변 재생 이미지

으로 활용하여 驛舍와 일체화된 보전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그림 8>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 나주驛舍를 대상으로 문헌 및 자료 분석, 실측조사,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하여 驛舍의 변천과정과 그 특성을 파악하고 보존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구 나주驛舍는 표준설계에 의해 1913년 일본전통 양식의 목조단층, 우진각 지붕형식으로 건립되었다. 1925년에는 박공지붕의 정면에 삼각형의 박공면을 강조한 형태로 개축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1963년에는 대합실이 확장되고 지붕재료가 아연과형철판에서 골철판으로 변경되었지만 외관형태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현재의 驛舍의 모습은 1929년 사건당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시민들의 증언으로 보아 1929년 사건 발발 당시의 역사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합실, 사무실, 역장실로 이루어졌던 평면구성은 여

러 번의 내부개조에 의해 세분화되었음을 알았다. 따라서 구 나주驛舍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로서의 역사적 의의가 크므로 역사를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보다 1929년 사건당시의 모습으로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건물의 외관 형태에 최소한의 평면구성으로 재생하고 역사 그 자체를 전시물로서 존재하도록 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역전에 형성된 주거군 중에서 가로변의 건물을 驛舍와 연계하여 나주시민의 교육의 장 및 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의 장 그리고 이 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휴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 나주역사와 그 주변의 주거군의 보전 활용을 위한 연구의 첫 단계로서 면적보전의 핵이 될 수 있는 나주역사의 역사적 변천과 활용방안을 고찰하였다. 향후 구 나주驛舍의 보전활용과 함께 주변의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주거군을 포함한 가로변 계획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차후의 연구과제로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김동식, 김태영(2002), 근대건축문화재의 보전과 관리현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 15호.
2. 이혜경, 윤인석(2000), 한국근대건축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0권 2호.
3. 김종현(1998), 韓國鐵道驛舍(1899년~1945년)의 建築的 特性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1호(통권 111호).
4. 鮮交會(1960) 「朝鮮交通史」.
5. 朝鮮總督府鐵道局(1937), 朝鮮鐵道史 第一卷.
6. 사진으로 보는 근대 한국 I: 산하와 풍물, 서문당.
7. 철도청(1999), 한국철도 100년사.

(接受: 2004. 4. 26)